

“1년치 혁신, 일주일 만에 성과”… SKT, AI 기술 고도화

내달 개편 ‘에이닷’ 진입장벽 최소화
메타버스 ‘이프랜드’ NFT화 지원
1분기 영업이익 전년비 14.4% ↑
미디어·엔터프라이즈 등 성장세

SK텔레콤이 AI(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와 공동으로 소셜 능력과 지식대화 능력을 갖춘 AI 언어모델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또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AI 서비스인 ‘에이닷’에 대해 대규모 업데이트에 나선다.

SKT는 이와 함께 “글로벌 테크 얼라이언스를 구축한다”며 국내 AI 서비스에 멈추지 않고 글로벌 통신사는 물론 빅테크사와 제휴로 AI 생태계 확장은 물론 글로벌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손인혁 SK텔레콤 에이닷 추진단 미래기획팀 담당은 10일 오후에 진행된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을 통해 “고객 비헤이비어(행동)에 기반한 UX(환경·경험)로 개편하고 14세 이하 가입을 허용하는 등 진입 장벽을 최소화할 것

이라며 “하반기에는 텔코만의 에셋을 활용한 통화 내용 브리핑 등 텔코에 특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담당은 “지난 2월 개최된 MWC에서 해외 테크들과 미팅을 갖고 각자의 서비스, 기술역량을 활용해 차별화된 AI 서비스를 공동으로 구축하자는 얼라이언스를 제안했다”며 “이들 기업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얼라이언스 구축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빅테크 LLM과 AI를 주도하는 빅테크들과 제휴하고 있다”며 “우리 기술을 고도화하고 함께 역량을 모아 스케일이 있는 글로벌 진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준 에이닷 테크 담당은 “에이닷에서 자체 기술 고도화와 외부 파트너와 기술 협력 등 2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며 “최근 생성형 언어모델은 1년치의 혁신이 1주일 만에 이뤄질 정도로 발전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존 AI 모델을 1800만 학습 모델에

서 3900만 모델로 업그레이드하고, 인간의 피드백과 강화학습을 활용해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고객 요청에 맞는 업무로 연결하고, 다양한 라지 랭귀지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멀티 랭귀지 모델 구조에 적합한 통합 랭거를 연내 개발해 자연스럽게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KT는 하반기에 메타버스 서비스인 ‘이프랜드’의 경제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양행석 SK텔레콤 메타버스 CO담당은 “아바타, 공간, 모션 등 3D 콘텐츠를 한 공간에서 사고 팔고, 유료 입장권, 노래방 등 구매가 가능하고 인플루언스 후원 기능까지 마련된 이프랜드 경제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미기 아이템은 전용 콘텐츠 NFT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창작한 아이템을 NFT로 거래해 다른 창작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용자 참여형 생태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T는 5G 중간요금제 출시의 효과에 대해 “장기적인 효과는 지켜봐야 한

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가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지형 SK텔레콤 통합마케팅전략 담당은 “고객들이 개인의 혜택을 누리도록 요금제 선택권도 넓어졌다. 이를 통해 5G 이용 만족도도 높아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고객 리텐션 제고로 연결될 수 있어 요금제 출시의 임팩트가 있었지만 당장 긍정,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문제”라고 언급했다.

SKT는 또 메타버스의 SNS 서비스로 볼 수 있는 ‘이프홈’을 선보여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양행석 담당은 “유저들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공간을 갖고 친구를 초대하고 친구의 이프홈에 놀러가고 하는 등 새로운 소셜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출시 초기이기는 하지만 공간을 꾸미는 재미, 친구 이프홈을 방문하는 재미 등이 있어 서비스가 한 단계 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SKT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전

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한 4948억원을 기록한 실적을 발표했다. 또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 늘어난 4조 3722억원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 1분기 매출 4조 3722억원, 영업이익 4948억원, 순이익 3025억원을 기록했다.

유무선 통신 사업도 지속적인 성장세로 1분기 말 기준 5G 가입자 수는 1415만 명으로 전체 고객의 60%를 상회한다.

미디어와 엔터프라이즈 등 신사업 영역의 매출이 각각 10.2%, 5.8% 증가했다. 순이익은 투자회사 배당수익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했다.

SKT의 구독 서비스 ‘T우주’의 1분기 월간 실사용자 수는 180만 이상을 달성하며 국내 대표 구독 서비스로 입지를 공고히 했다.

지난해 49개국에서 출시된 메타버스 서비스인 ‘이프랜드’도 1분기 월간 실사용자 수의 10% 이상을 해외에서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中 블록체인 특허 세계 1위… 韓, 4위 기록

엔트그룹 등 상위권에 6개사 포함
해외 사례 모니터링·연구 필요

블록체인이 차세대 정보기술과 빠르게 발전하며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응용이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 간 블록체인 관련 특허 출원 경쟁도 치열해지는 추세다.

특히 중국기업이 올해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특허를 가장 많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이 발표한 ‘글로벌 블록체인 특허 현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 세계 블록체인 분야의 특허 수권 건수는 총 37,595건이다.

이 중 중국의 특허 건수는 22,457건으

로 전체의 59.7%를 차지하며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미국은 8,950(23.8%), 일본 1,339건(3.6%), 한국은 976건(2.6%) 순이다. 그외 국가들의 특허 비율은 모두 1% 미만에 불과했다.

중국은 블록체인 특허권자 측면에서도 세계 상위 10위권에 6개 기업을 포함시켰다. 엔트그룹, 텐센트, 바이두, 평안테크놀로지, 차이나유니콤, 항저우푸자메이테크놀로지다. 특히 엔트그룹은 특허 건수 4,740건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텐센트는 3,439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중국의 행보를 눈여겨 볼 필요 있다고 강조한다.

블록체인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등 차세대 정보기술과 접목해 다양한 산업군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특허를 받아두면 전 세계 시장에서 기

술력에 대한 입지가 확고해 질 수 있다는 것.

블록체인 관련 한 전문가는 “중국은 이제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국가가 됐다.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들이 디지털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행보를 눈여겨 봐야 한다. 한국도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수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블록체인 특허 건수가 세계 4위를 기록한 반면, 특허권자 순위에서는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하며, “엔트그룹, 텐센트, 바이두, IBM과 같은 해외 기업의 연구개발 방향과 특허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온라인서 한정판 ‘뉴 XM 퍼스트 에디션’ 출시

BMW코리아는 10일 BMW 샵 온라인에서 ‘뉴 XM 퍼스트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모델은 초고성능 SAV 모델인 뉴 XM 출시를 기념해 만든 첫 한정판 모델이다. 차체에 케이프 오크 그린 메탈릭 컬러를 적용하고 대형 키드니 그릴의 테두리와 측면 윈도우 프레임에 나이트 골드 컬러로 마감,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매력을 더했다. 23인치 대형 바이 컬러 휠에 검정색 M 스포츠 브레이크도 장착했다. 실내는 M카본 파이버 인테리어 트림과 알칸타라 소재 시트, BMW 인디비주얼 메리노 & 익스클루시브 콘텐츠 및 알칸타라 루프 라이너를 기본 탑재했다.

/BMW코리아

포스코퓨처엠, 두 번째 책임광물보고서 발간

ESG 경영 공급망 체계 지속 밝혀

포스코퓨처엠이 두 번째 책임광물보고서를 발간했다.

10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책임광물보고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광물의 채굴 과정에서 인권 및 노동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기업의 원료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 등을 점검해 책임 있게 진행한 개선 노력과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보고서다.

포스코그룹은 2020년 철강업계 최초로 책임광물 글로벌 협의체 RMI에 가입한 이래 그룹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임광물을 유기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의 책임광물보고서 발간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21년 11월 국내 배터리 소재사 최초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보

고서에서 분쟁 단체의 자금 유입,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없는 광물을 사용하며 ESG경영 관점의 공급망 체계를 지속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은 양극재 원료이자 분쟁광물로 분류되는 코발트, 텅스텐의 경우 책임광물 글로벌 협의체인 RMI이 검증한 광산과 공급사에서만 원료를 공급받고 있다. RMI 검증을 마친 공급사는 2021년 기준 5개에서 2022년 6개로 확대됐다.

구자현 포스코퓨처엠 구매계약실장은 “환경과 인권을 고려한 광물 구매정책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배터리 소재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임광물보고서는 포스코퓨처엠 홈페이지의 ESG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KT-한솔코에버, 제조업 DX 사업 추진

AI·빅데이터 기반 ESG 경영 확대
환경·에너지 분야 신규 사업 개발

KT가 한솔코에버와 제조업 분야의 디지털전환(DX)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9일 송파구 KT 송파빌딩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정보기술(IT) 솔루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조업단지의 DX(디지털전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ESG 경영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제조공정 업무 효율화 및 환경·에너지 사업분야에서도

신규 사업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KT는 5G와 네트워크, 환경DX, AI, 클라우드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제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선도적인 IT 기반 시설과 기술력을 통해 타 분야의 선도 기업들과 제휴 협력을 추진하는 등 DX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한솔코에버는 AI 플랫폼과 에너지관리 솔루션 등을 보유한 기업으로, 국내 뿐 아니라 일본, 베트남, 멕시코, 파키스탄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해, AI에 기반을 둔 DX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KT Biz사업본부장 김재권 상무는 “한솔코에버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DX에 앞장서겠다”며

솔코에버 업무



KT Biz사업본부장 김재권 상무(왼쪽)와 한솔코에버 방기동 대표가 MOU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다양한 산업별 우수 솔루션 기업과 ICT(정보통신기술)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